

외국인 포교·불교영어 강좌 “맡기세요”

부산국제포교사회, 제14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개강

부산국제포교사회는 7월 27일 오후 7시 흥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에서 입제식을 갖고, 제14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실시하는 국제포교사 선발고사에 응시해 그 품수를 받기 위한 준비단계로, 공인된 국제포교사 4명 밖에 없는 부산에서 국제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입제법문에서 “이웃종교는 획기적이고 집요한 선교전략으로 빠르게 전파하고 있지만, 불교는 기도 등 사회와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포교로 현대인의 공감을 얻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부산에서 찾는다는 격려를 많이 듣곤 하는데, 오늘의 마음이 회향하는 날까지 이어져 희망을 이룰 원력을 모아 함께 공부해나가자”고 설했다.

연수기간은 7월 27일 입제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오후 7-9시까지 2시간씩 총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포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불교 기본 교리와 경전, 인도·중국·한국·티베트·미국 등 국가별 불교역사, 불교수행방법론, 이웃종교와의 비교 및 철학적 비판, 호스피스와 포교,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 등에 관한 깊이있는 내용을 배우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게 된다.

외국인 포교와 불교영어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참가자 전원엔 사전 면접을 통해 영어의 기본지식은 물론, 포교사로서의 자세와 불교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을 엄중히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정성숙(52)씨는 “영어는 자신 있지만, 불교를 너무 몰라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사찰과 불교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소개하고 싶어서 참가했다”며 이번 교육에의 욕을 보였다.

또 범어사에서 사찰안내 관련 업무를 맡은 오세찬(48)씨는 “평소 전통사찰 범어사 등에서 방문객들과 사찰안내·문화재해설사로 만나고 있지만, 영어능력이 향상되면 외국인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으로 포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했다.

30년 전 호주로 이민 간 우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참가한 입제식(50)씨는 “우리 아이들과 멀리 호주에서 자랄 이민 2-3세들에게 한국의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해외교포들에게는 영영 잊혀지고 말 것 같아 안타까워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 정성수씨는 “그간 알코올 중독증 치료에서 불교의 한수행법인 위빠사나명상법을 활용했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국제포교사 교육과정은 나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밝혔다.

추후 국제포교사 고시에 합격하면 국내 및 해외 거주 외국인교와 해외교포들을 위한 불교 영문 자료 개발, 각종 국제행사, 국내 외국인노동자 행사, 미8군 행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통역 및 문서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부산국제포교사회는 7월 27일 흥법사에서 입제식(오른쪽)을 봉행하고 제14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부산국제포교사회는 7월 27일 흥법사에서 입제식(오른쪽)을 봉행하고 제14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교수행방법론, 이웃종교와의 비교 및 철학적 비판, 호스피스와 포교,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 등에 관한 깊이있는 내용을 배우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게 된다.

외국인 포교와 불교영어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참가자 전원엔 사전 면접을 통해 영어의 기본지식은 물론, 포교사로서의 자세와 불교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을 엄중히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정성숙(52)씨는 “영어는 자신 있지만, 불교를 너무 몰라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사찰과 불교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소개하고

싶어서 참가했다”며 이번 교육에의 욕을 보였다.

또 범어사에서 사찰안내 관련 업무를 맡은 오세찬(48)씨는 “평소 전통사찰 범어사 등에서 방문객들과 사찰안내·문화재해설사로 만나고 있지만, 영어능력이 향상되면 외국인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으로 포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했다.

30년 전 호주로 이민 간 우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참가한 입제식(50)씨는 “우리 아이들과 멀리 호주에서 자랄 이민 2-3세들에게 한국의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해외교포들에게는 영영 잊혀지고 말 것 같아 안타까워 참가하게 됐

다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 정성수씨는 “그간 알코올 중독증 치료에서 불교의 한수행법인 위빠사나명상법을 활용했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국제포교사 교육과정은 나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밝혔다.

추후 국제포교사 고시에 합격하면 국내 및 해외 거주 외국인교와 해외교포들을 위한 불교 영문 자료 개발, 각종 국제행사, 국내 외국인노동자 행사, 미8군 행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통역 및 문서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따를 터”

민불협, 홍양호 통일부차관 초청 종교지도자 상생공영포럼 개최

부산지역 종교지도자 및 시민을 위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포럼이 개최됐다.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 법혜)는 7월 24일 오후 2시 코도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을 초청해 부산지역 종교지도자 상생공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정각 스님과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명예회장 양원장 등 각 종교 지도자 및 일반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7월 24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 초청 부산지역 종교지도자 상생공영포럼을 개최했다.

제로 한 특강과 자료집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역대 모든 정

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원칙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하는 것’이라며 “대북정책 추진의 제1원칙은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가 힘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관해서는 “핵 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가 순항할 수 없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폭넓은 대북지원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며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청소년 나들이

두송복지관 여가지원

(사)늘기쁜마음 두송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지현)은 7월 25일 놀이공원에서 청소년 여가지원 프로그램 ‘Light! Right!’로 지역 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나들이를 선사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여가문화를 마련해주기 위해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일반 가정 청소년 13명과 인솔교사 등이 함께 대구 우방랜드에서 지친 일상과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색다른 여가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박지원 기자

5박6일 용맹정진

여래선원 8월 11~16일

부산 도심 속 참선도량 여래선원(선원장 황규근)은 8월 11~16일 5박6일간 용맹정진법회를 연다.

여래선원 도량은 복귀 화명동 신시가지 내에 자리하고 있어 수행 틈틈이 벗 삼을 자연은 없지만, 오직 ‘참선’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선수행을 하기에 탁월한 지도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용맹정진법회의 일과는 입제 및 해제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하루 12시간 정진한다. 매 식사는 발우공양으로 하며 점심과 저녁공양 후에는 식후 포안감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게으름을 108배로 다잡는다.

황규근 선원장(58·현담)은 “용맹정진은 참선공부의 비결과 스스로의 공부를 비추는 거울이며, 도량 및 도반과 선지식의 공덕을 깨닫는 것”이라며 “경전을 읽고 참선하고, 법문을 듣고, 실천하는 등 여러 수행방법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용맹정진은 분명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1)362-0339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잘샀고 불경기에도 흥양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자봉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여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리로 제작해 풀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생동인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운전하는 가족친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리가 있다. 고급게 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 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전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 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질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웅궁에도 있고 여의륜관 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

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

문제에 의해 1년을 또 고속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복으로 풀이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